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가을호 | 2016년 10월 25일

발행인 유병우 회장
 편집인 오홍열,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2016년 가을호 유병우 회장 인사말>

정부, 국회를 상대로 조합원의 업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4천 사업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유례없던 지난 여름의 폭염도 서늘한 가을 바람에 밀려나고 어느새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규모이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 충격과 불안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진발생 지역 인근에는 원전 밀집지역이라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어 첫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정국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민심을 대변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민생 우선의 정치가 실현되어 서민의 시름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대내·외적인 혼란속에서도 대정부, 대국회 등 활동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 취임후 업계최초로 지난 7월 28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연합회로 초청, 시·도조합 이사장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인택시의 현안문제, 향후 발전방향 등을 집중 토론 하였으며, 정책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0월 4일에도 국토교통위원장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조정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택시발전법" 문제제기와 개정 필요성, LPG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한 감차

재원 마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 농어촌 지역의 승합차 도입 등 정책대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으며, 우리 업계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시소통을 통하여 개인택시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사업자 여러분!

여전히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택시 주변환경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각종 교통사고로 교통업계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개인택시업계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승객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믿고 타는 개인택시! 신뢰받는 개인택시 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해자 및 사고자 가족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점을 깊이 유념하여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금년을 보람차게 보내시어 유종의 미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보다 더 우대받는 대출은 없을까?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이라면 신용대출보다
 평균 9%p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고한도 5,000만원

+



최저금리 연 5.9%

+



각종 수수료 면제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저 300만원~최고 5,000만원
- 금리 : 5.9~22.9%(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48개월 중 택일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연체 이자율 : 17.9~27.9%
- (고객 대출금리별 차등 적용)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10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 (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 가능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전화상담 : 1899-6282 (전문상담원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 차량 근저당 설정 후 대출금 송금 가능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준법감사심의필 제160617-083855호(2016. 07. 01~10. 31)

※ 신용대출 금리 비교 예시 :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2016년 1~2월 금리 기준

INTERVIEW

조정식 위원장, 택시 발전법이 택시업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흥! 희망의 시흥! 이라는 약속으로 압도적 표차이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4선 중진반열에 오르면서 국토교통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도회풍의 핸섬한 외모와 달리 살아온 과정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정치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정치 실현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조정식 위원장을 유병우 회장은 10월 4일 국회 국토위원장에서 만났다.

<편집자 주>



Q 국정감사와 산적한 정치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위원장께서는 국토교통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개인택시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택시업계의 현안문제 해결과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업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A 저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써 주요 대중교통 중 하나인 택시업계의 고충과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동안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택시업계는 다양한 측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악화를 비롯해, 정부의 택시업에 대한 지원미비, 불법승용차 운송 증가로 인한 문제, 신규운송 제도와의 충돌 등이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택시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택시업계, 특히 개인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 유병우 회장은 7월 28일 조정식 국토위원장을 연합회로 초청, 16개 시도조합 이사장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실을 건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조 위원장을 만난지가 석 달도 채 되지 않는데 풀리지 않는 조바심때문에 10월 4일 국회 국토위원장으로 찾아가 만나 재차 건의를 했다.



▲ 택시발전법은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했습니다. 택시업계의 발전 법에 대한 문제 인식을 동의합니다.

Q 먼저 택시발전 법률이 입법되었지만 입법취지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택시발전법은 제정당시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나마 의미있는 진척이었던, 택시 감차 지원 및 복지자금 마련 등은 정부의 실효성있는 후속 지원대책 마련이 되지 못하면서,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택시업계의 택시발전법에 대한 문제인식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Q 택시발전법이 실질적인 택시업계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정 및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있는 추가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합회는 2008년부터 택시특별법입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리 업계의견을 반영해 가칭 “택시산업진흥특별법”이 발의됐으나 번번히 무산되어 큰 실망을 겪어오다가 2013년 1월 1일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육성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이명박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014년 1월 28일 현재

의 택시발전법이 통과되었으나, 정부와 견해 차이로 입법된지 2년이 지나도록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발전법개정이 절실한 시점에서 여·소야대로 짜여진 20대 국회는 어느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또한 역대 국토교통위원장 중 가장 민생정치에 높은 의지를 갖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에 대한 16만 개인택시사업자의 기대는 가히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습니다.

A 지난 10월 4일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택시발전법률의 문제점과 개정필요사항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대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법률은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산업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승차거부 등의 일부 불법행위의 모든 책임으로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일부 과도한 측면

[Q] 유병우 회장, 택시발전법이 통과 된지 2년이 넘도록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만 개인 택시 사업자는 기대하겠습니다.



▲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여서 조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전법지정에 대한 노력 약속에 16만 우리 사업자는 조 위원장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사용자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택시 사용자와 사업자,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에 대한 감차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화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택시업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면서 개정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Q 택시발전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감차재원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는 감차보상금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영세한 개인택시사업자가 감차 재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감차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위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택시발전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위원장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앞서도 언급했지만, 택시발전법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포화상태의 택시에 대해 감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택시업계의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택시업계의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마련이 필요합니다.

택시발전법의 통과 이후 실효성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LPG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감차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동방안의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운용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택시업계를 관장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간의 면밀한 공동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감차재원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도입을 위해 범 국회차원의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농어촌 지역의 승합택시 도입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지지역 고령자들의 교통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택시를 이용한 여객수송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용자동차로 제한하는 것도 단위 지역 시 지역과 군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입니다.

지역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비해 승합자동차의 운행이 보다 효율성이 높은 경우가 있음에도 차량 규제에 인하여

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택시 사업구역에 관계없이 전국이 동시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또한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관련 군 지역 제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A 지난 2월 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 13인 이하의 대형택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버스 노선이 부족하거나, 추가 노선신설이 어려운 오지지역의 경우 택시요금 보조를 통해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지역 등 오지지역에서 대형택시의 도입은 교통복지확대에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자동차 택시보다 승합자동차형 택시가 운행에 효율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지역의 버스사업자 등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군지역 이하 오지지역의 승합자동차 택시의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및 전문가 등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 끝 없는 불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서민의 정치를 표방하는 조 위원장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비롯한 30만 택시가족에게 격려와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택시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소비도 계속 줄고 있고, 내수시장도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택시가족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국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통해 내수침체에 대응해야 하고, 택시, 자영업, 중소기업과 같은 서민경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이지만, 시민들의 발인 택시업계가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택시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NEWS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정책간담회 성황리에 마쳐

유병우 회장, 16개 시·도 이사장과 함께 격의없는 개인택시 현안 토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는 7월 28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연합회로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20대국회 첫 국토위원장으로 현장에 와서 연합회장 및 시·도조합 이사장을 뵙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돼서 매우 반갑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후에도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교통수단의 한축인 개인택시 업계가 경제위축 및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토해양위원, 기획재정부, 예산결산 특별위원 등 다양한 국회 경험을 살려 업계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병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친히 연합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16만5천 사업자를 대표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전도유망한 4선 젊은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하여 큰일을 하시라며 덕담을 나눴다.

연합회 및 공제조합 현안문제 관련해서 유병우 회장과 시·도조합 이사장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전담지부장 이행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최소한의 경비로 공제조합을 별무리없이 운영하고 사업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금지원 설립을 강행하



▲ 시·도조합 이사장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자 하는 것은 육운공제에 대한 이중규제로 대표적인 옥상옥 구조이므로 ▲개정 법률안 제37조의3(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①항에서 자동차손해배상금지원에 기금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37조의4(기금의 용도)각 호의 내용 중 10호(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금지원 운영 및 지원)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 했다.

또한 ▲공제규정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인 여객법 시행령에 맞게 예산승인제출로 개정하고자 수차례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민간 자율권 침해와 지나친 간섭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 현안문제로서, 택시발전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감차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연료에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 했으며 ▲승합택시 도입 관련 군지역 확대 시행 건의 택시 사업구역에 관계없이 전국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13인승이하 승합택시 관련 군 지역 제외 단서조항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과 관련해서는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긴급환자 이송,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택시의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수익 및 경영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친환경 차량 전기차에 대해서는 개인택시가 선도적으로 전기차 보급계획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기차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전기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개인택시는 대·폐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정부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다.

조정식 위원장은 공제조합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지만 면밀히 검토하겠다. 택시정책이 뒤죽박죽이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무너졌다. 업계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난마와 같이 얽힌 현안문제에 대해서 두차례 국토위원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정식 위원장과 전재진 직능본부장, 윤상은 수석 보좌관이 참석했으며, 16개 시·도조합 이사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허심탄회하고 화기에 애하게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TS 교통안전공단

영국인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지방·공유·소통·협력]

사람들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자동차 그러나 보행자 사고 OECD 1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이제 우리가 지켜야할 약속입니다.



우리조합 NEWS

연합회 회장, 시·도조합 이사장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연합회 전무이사에 이성운 기획실장

10월 1일 오랫동안 공석 중인 우리 연합회 전무이사에 이성운 기획실장이 취임했다.



이성운 신임 전무이사는 이리고와 전북 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에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에 입사해 1989년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로 옮겨 지난 9월 30일까지 기획실장으로 재직했다.

우리 연합회는 7월 28일 제3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유병우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돼 최초의 내부 승진의 발판이 만들어졌다.

10월 1일 취임한 이성운 전무이사는 “유병우 회장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조합 이사장을 보좌해 연합회가 추진하는 현안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참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연합회와 시·도조합, 또한 산하 시·군지부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이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민원감축사업 시행!!

“2017년 상반기까지 민원 50%감축 계획”

2015년도 우리개인택시의 민원건수는 9399건에 달했다. 물론 민원의 상당수가 조합원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개인택시의 민원이 우리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우리개인택시 이미지제고는 물론 우리개인택시업계를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실시한 개인택시 환경사업과 더불어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민원 50%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민원감축 계획으로는 **첫째, 분기별로 각지부별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캠페인과 더불어 상급위반자는 지부에서 별도관리토록 하되 위반자 민원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부장과의 면담 등을 할 경우 유료상품권(1만원 상당)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둘째, 지부 민원감축 평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120번 및 조합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민원대상 수,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점, 사고자 수, 여객법 및 택발법위반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평가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평가 후 우수지부에는 서울시 포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조합자체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의 민원감축사업은 우리업계가 서울시나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나의 작은 잘못된 민원유발 행위가 전체 개인택시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소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조합의 민원감축사업에 적극 호응하여 우리개인택시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데 사명감을 갖고 모든 조합원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지구리충전소 개소식 개최!!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조합 복지충전소 이용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운송부대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005년도 복지충전사업을 시작한 이래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6년 9월 1일(목)부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동구릉로 188)에 부지 약3163m(956평)의 복지구리충전소를 개소하였다.

이로써 서울 권역 인접 시계지역에 복지구리충전소를 개소함으로써 조합 복지충전소 이용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운송부대비용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 9월 9일 3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복지구리충전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LPG 충전사업 경과보고를 통해 “조합의 충전사업은 2005년 3월 1일 복지제1충전소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11일 복지마곡충전소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이 흘러 현재는 11개소 복지충전소를 운영하는 LPG충전사업의 선두주자로서 자리 매김하였으며 충전사업 수익금으로 10여년동안 조합원에게 장려금 등으로 지급한 금원이 760여억원, 조합 예산 등 간접적으로 기여한 금원은 110여억원으로 직간접적으로 충전사업을 통하여 기여한 금원은 총 87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복지구리충전소가 개소함에 따라 구리, 남양주의 경기 서남부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의 조합 복지충전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운송부대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 구리충전소 개소식에서 이연수 서울조합 이사장(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해 내빈의 축하속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특히 충전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세차기를 터널식으로 새롭게 교체하고 셀프서비스 코너도 개선하였으며 오일교환소를 설치하는 등 조합원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새롭게 개선공사를 마쳤다.

조합 이연수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전임 이사장들의 노고와 조합 발전을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택시요금인상,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상향조정 등 우리 서울개인택시의 업권을 위해 앞장서겠

다”고 밝히고 2005년도에 최초로 마곡충전소를 시작으로 오늘 복지구리충전소가 개소하기까지 조합 LPG 충전사업에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에 기여한 차순선 전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지난 10여년간에 충전사업의 성과는 전체 조합원의 단결된 힘의 결과물로서 앞으로도 조합은 복지충전사업을 발전시켜,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술 기자의
라이브 인터뷰

경북조합 서돌식 이사장

경북 조합 사옥 안동 이전 임기내 추진할 터

서 이사장, 23년동안 포항 지부장, 경북 이사장으로 경영 맡아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경북조합
서돌식 이사장

1984년 11월 8일, 포항시청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해 개인택시업계에 입문해 포항 지부장 12년, 경북도 조합 이사장 11년 등 23년동안을 최고 경영자로 고속질주하는 서돌식 이사장에게 도단체 종착역이 어디냐고 물었다.

“죄송합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너무 오랫동안 경영자 자리에 머물러 있지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은 모두 선출직으로 절반은 내가 하고 싶어서, 절반은 조합원에게 붙들려 여기까지 왔지요. 나도 종착역이 어디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서 이사장은 23년동안을 최고경영자로 살아 왔으면서도 그가 떠날 때는 모른다고 한다.

서 이사장은 경북도 조합 이사장 선거를 4번 하면서 2번을 무투표 당선을 한 진기록을 갖고 있다. 경영자로 첫 출발인 포항시 지부장도 4번이나 당선됐다.

Q 시 지부장이고 도 이사장이고 당선을 하면서 통련을 하시는데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A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도 힘든 일인데 예산도 없이 조합원을 주주로 믿고 밀어부쳐 2200평의 부지에 사옥, 충전소, 정비공장, 식당 등을 고루 갖춘 복지 조합을 만들어 낸 업적을 높이 평가해 경영자로 합격점을 받은 것이 지부장과 이사장으로 4선을 하는 영광을 누린 것 같습니다.

서 이사장이 개인택시 최고지도자 기간동안 업적 가운데 포항시 지부를 복지지부로 조성한 업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업적으로 평가되어 포항시 지부장을 뛰어넘어 경북도 이사장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제 8대 포항시 지부장을 마지막으로 제 8대 경북도 이사장에 출마했을 때는 경쟁자가 기권, 무투표 당선되어 싱겁게 이사장에 승진 진출하는 기록을 세운다.

Q 도 조합 경영은 이원화되어있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도 조합을 복지조합으로 실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을 텐데요.

A 그렇습니다. 1단계 시·군지부, 2단계 도 조합, 3단계 연합회 구성으로 되어있는 조직에서 도 조합은 간접경영과 직접경영을 병행합니다.

최근에는 브랜드 택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기, 내비게이션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고, 또한 영상기록장치,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도 예산지원 대상입니다.

이같이 모든 예산지원대상 사업은 도내 23개 시·군지부가 시·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비 지원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비지원을 확보하는 독자적 경영과 시·군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시·군지부를 통해 간접경영을 하지요.

중간층에 있는 도 조합은 연합회와 연대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입법추진도 하고 조합원의 업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 활동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역할도 있습니다.

Q 경북 교통문화연구소 이사장, 한국 교통사고 안전교육원 회장도 맡고 계시죠.

A 흑자는 저보고 감투욕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은 말지 않습니다.

연수원장을 맡고 보니 매년하는 연수교육이 번거롭다는 생각을 하고 택시기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격년제로 바꿨습니다.

또한 연수원 이사장이 연수교육 강의를 하면서 우리 조합원을 만날 수 있으니 그것도 조합원과 소통하는 방법도 되지요.

Q 조합원들과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A 도 조합에는 조합원이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이 조합원을 찾아다니며 만나야

됩니다.

경북도는 지역이 넓어 관내 시·군을 한바퀴 돌려면 1주일도 걸립니다.

저는 매일 직원들과 똑같이 오전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해 결재도 하고 또 업무지시를 하면서 오전을 보냅니다. 오후에는 관내 시·군지부를 방문해 지부장을 만나기도 하고 조합원을 만나기도 하지요.

또한 일제 점검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쳐놓고 현장에 가서 조합원들과 만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격려도 합니다.

Q 조합원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은 때어놓고 ‘서돌식입니다’라고 하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A 말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조합원이 직함이 없는데 내가 직함을 호칭하면 상대가 권위 의식을 느낄까봐 일부러 이름만 호칭합니다.

포항 지부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게 도조합 이사장이 되어서도 조합원은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로 생각하고 조합업무를 봅니다. 조합원에게 저는 이사장이기보다는 서돌식입니다.

Q 경북조합 조합원 분포를 보면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를 비롯한 10개시에는 6935명의 조합원 중 6193명이 집중되어 있는데 군위군을 비롯 13개 군에는 74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득 불균형도 많으리라 보는데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 그렇습니다. 인구도 적고 택시 교통수요도 적기 때문에 하루에 버는 운송수입이 도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만나서 농촌주민과 학생을 위한 복지택시와 통학택시 운영을 일찍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인식 차이가 많습니다.

재정지원해주면서 군내 버스는 운행하면서도 복지 택시에 대한 거부반응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천군, 봉화군, 의성군, 성주군, 울진군, 영덕군, 영양군 등 13개 군 가운데 7개군에서 2014년부터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행복택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희망이 보입니다.

현재 행복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 7개 군에 대해서는 운영 규모를 확대하도록 해당 군지부장과 함께 노력하면서 아직도 행복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6개 군도 행복택시제도를 채택하도록 해당 지부장과 함께 노력하면

서 도와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서 이사장께서는 포항시지부를 복지지부로 만든 장본인이자 도시지부를 상대로 복지지부를 만들도록 복지전도를 하셨을텐데요.

A 경북도내 10개 시지부 가운데 포항시지부를 비롯 경주시지부, 안동시지부, 구미시지부가 자체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구미시 지부는 임대 충전소까지 2개 충전소를 경영하고 있고 영주시 지부도 임대충전소를 경영, 조합원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요.

아직 충전소를 경영하지 못하고 있는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영천시 등은 조합원 규모가 적은 도시입니다.

또한 안동시, 문경시, 영천시,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등 8개 시·군에서 2370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요.

도 조합은 도비지원을 시·군지부는 시·군으로부터 시·군비 지원을 받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Q 경북도청은 안동시로 옮겼는데 도 조합은 경산시에 있어 도청과 업무추진이 불편하지는



▲ 지난 1월 28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경북조합 정기총회에서 그동안 개인택시 관련 법 개정에 많은 협조를 해준 국회 이철우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서 이사장.

않은지요.

A 우리조합은 사육을 마련할 때마다 부채 없이 우리조합 자산만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안동 이전도 그런 원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복지조합 규모로 대부지를 1500평 정도 구상하다보니 경산사육과 구 대구사육을 매각해도 부족할 것 같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사육매각대금에다 무이자지원을 받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11대 이사장 임기 중에 실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 이사장은 사육 이전이란 벽만 계획까지 밝힌다. (글·김관술)

경북조합 발전을 이끄는 시·군지부장



경산시 김종필 지부장



경주시 강태조 지부장



고령군 조정식 지부장



구미시 김종배 지부장



군위군 김태호 지부장



김천시 홍철곤 지부장



문경시 김동필 지부장



봉화군 권태홍 지부장



상주시 임병묵 지부장



성주군 배성화 지부장



안동시 김연수 지부장



영덕군 한성국 지부장



영양군 권영복 지부장



영주시 박춘규 지부장



영천시 강귀환 지부장



예천군 박재일 지부장



울릉군 윤경길 지부장



울진군 박헌기 지부장



의성군 심무섭 지부장



청도군 서상열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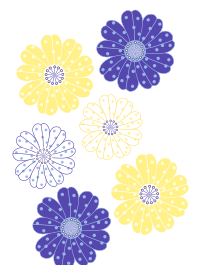
청송군 이시탁 지부장



칠곡군 이원권 지부장



포항시 임성규 지부장



지부
탐방

경기조합 안산지부

“이제는 복지충전소도 갖어야 하지요”

정 조합장, 화합조합 만들기에 조합 역량 집중할 터

경기조합 안산지부
정길호 지부장

2082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경기도 안산시 조합은 도내 31개 시·군 조합 중 5번째로 규모가 큰 조합이다. 그런데도 조합규모와는 달리 조합복지시설은 전무한 상태다.

안산조합의 총 자산은 300평 대지에 150평 규모로 건축된 자체 사옥이 전부다.

조합 사옥 1층에는 정비공장, 2층에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2000여명의 조합원이 사용할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장 같은 복지시설은 건물 공간이 없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이 단결하면 2개 이상의 LPG 자가 충전소를 경영할 수 있는, 2000명의 조합원이 있어 진작 복지충전소나 복지시설을 보유할 수 있는데 조합은 속빈 강정이나 다를 없다.

이런 안산조합에 정 조합장이 취임 후 조합원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기운이 돌아나고 있다.

◆ 참신함 내세워 선거운동

올 1월 6대 지부장에 무경력자의 정길호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은 어느새 조합을 신뢰하고 조합원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1일 3명의 후보가 출마해 조합장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부정선거로 무효가 되어 12월 19일 재선거를 실시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정길호 후보가 61.7%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조합장에 당선된 정길호 조합장은 해병대 부사관으로 전역, 2004년 개인택시를 양수받아 입문한 조합원이다. 개인택시를 입문한 12년동안 조합장 출마를 꿈꾸지도 않았고 조합의 대의원이나 이사를 역임하지 않은 무경력 조합원이다.

“저는 정말 조합장이란 직책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의 분열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조합원으로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19일에 두 번째 선거가 공고되자 주변 조합원들의 권유를 받들어 갑작스럽게 출마했습니다. 급작히 한 장짜리 선거홍보물을 준비하면서 제 자랑거리를 찾다보니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이란 말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참신한 만큼 ‘투명한 조합으로 확 바꾸겠습니다’는 공약을 내걸고 짧은 기간동안 선거운동을 했는데 61.7%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아마도 부패한 경력자보다 무경력자의 참신함을 조합원들은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귀신잡는 해병이라는 강인한 인상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시골 초등학교 교사같은 서민적인 정길호 조합장은 ‘성원해 준 조합원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정 조합장은 취임하자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조합게시판에 공고하고 투명조합으로 변신하고 있다.

조합기구도 안산시 행정구역에 맞게 ▲단원지부 ▲상록지부 등 2개 지부장을 임명, 조합에 함께 근무하면서 단원지부장은 조합의 행정을, 상록지부장은 조합추진사업

을 나누어 관장케 하는 체제를 구축,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 어느새 복지사업 추진도 시동

정 조합장은 복지사업 제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 조합이 안산시에 개업한 경기 태평양 충전소를 시 조합이 이관받기 위해 도 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펼치고 있다.

경기 태평양 충전소에는 정 조합장이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안산지역 조합원에게 LPG를 판매하고 있고 조합원들도 25~30%가 시 조합에 없는 세차기, 휴게실, 체력단련실을 활용한다.

정 조합장은 ‘도 조합 충전소를 인수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복지조합을 추진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힌다.

조합원들의 운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설치된 62개소 택시 승강장에 6개소 증설과 고잔역 주변에 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택시기사 쉼터 조기착공을 안산시청과 협의 중이다.

또한 2000여 조합원의 낡은 내비게이션도 대당 시 예산 지원 25만원, 조합원 부담 5만원으로 교체를 추진하는 등 조합의 내실을 다지면서 시 지원 예산 요청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제 정길호 조합장이 취임한지 9개월 남짓이지만 안산조합은 분열과 갈등의 조합에서 단결하고 화합하는 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글·김관술)



▲ 1층에는 정비공장, 2층에는 조합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안산시 조합 사옥.



경남조합 진주시부

“복지충전소 조합원 95%가 이용, 화합 과시”

최 지부장 시청 지원받아 휴게실, 체력단련장 만들 터

경남조합 진주시 지부는 15년째 LPG자가복지충전소를 운영하는 든든한 복지조합이다.

조합원수가 1007명으로 경남도 조합에서 조합원 규모가 3위인 진주시 지부는 조합원의 충전소 이용률이 95%를 차지할 정도로 조합원의 화합이 탄탄하다.

◆ 복지충전소 개업

진주시 지부가 LPG충전소를 개업한 것은 2001년 8월이다. 복지충전소를 개업할 당시 조합원 600여명 중 400명이 1인당 50만원씩을 출자해 LPG충전소를 건축했다.

그리고 출자한 조합원에게는 대지만 평가해 증권을 나눠주고 4년마다 재평가를 해 대지값의 상승에 따라 증권 액면가를 올려주고 있는데 현재는 198만원 인상됐을 뿐 아니라 참여 조합원수도 99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843만 49610를 판매해 6억7074만원 판매실적을 올린 진주시부 복지충전소는 일반판매가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영에 성공, 조합원들에게는 든든한 부수입원이 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수익금 배당은 지분에 따른 배분방식이 아니라 조합원의 충전 기여도에 따라 지부비(조합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수익금을 조합원 한사람에게 1년에 평균 70만원씩 된다.

이런 진주시부 복지충전소도 한때는 조합원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조합원 충전소 이용률이 하락했었다.

◆ 최정철 지부장의 스마일 경영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오던 진주시 지부에 2010

년 최정철 제 27대 지부장이 취임하면서 조합 분위기가 신뢰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남을 비판하기 보다는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최 지부장은 지부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실시하고 결과를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자신이 말하기 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최 지부장은 조합원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릴레이를 펼쳤다.

이와 같은 최 지부장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분열을 녹여내고 화합을 일궈냈다.

지부장이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던 분열과 갈등은 2014년 28대 지부장 선거에서 최 지부장이 재선하는 화합의 조합으로 변화했다.

또한 진주조합은 지부소유 정비공장을 월 60만원씩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위탁운영 방식으로 계약하고 엔진오일, 라이닝, 배터리 등 자동차 4대 부품을 지부가 원가 구입해 조합원에게 원가로 판매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차량 수리를 하면서도 소모가 많은 부분을 지부로부터 원가로 공급받고 정비공장에는 공임만 지불, 차량수리비를 절약하는 경영을 한다.

진주시부는 전국 최초로 진주시가 개발한 콜택시 앱을 6월부터 공급받아 음성인식 무인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도, 손님도 모두 콜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콜비를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진주시부 소속 1007대 개인택시 중 680대가 앱을 설치했다. 아직은 홍보단계라 하루 2~3콜을 받고 있다.

진주시부는 8월에 지부택시 947대의 블랙박스를 도·시비 지원 70%를 받고 지부가 나머지 30%를 지원, 무상으로 설치했다.



경남조합 진주시부 최정철 지부장

“지부가 LPG충전소와 정비공장을 경영, 수익사업을 펼쳐 조합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조합원이 지부에 오면 편이 될 수 있는 휴게실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체력단련실, 식당 등 편의 시설이 없어 반쪽짜리 복지조합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청에 예산지원을 협의해 지부 부지를 넓히고 필요한 건물을 지어 온전한 복지조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철 지부장은 청사진을 밝힌다.

(글·김관술)



▲ 조합원 95%가 이용하는 진주시부 복지충전소.



▲ 사진 오른쪽부터 박점복 총무부장, 김지은 경리과장, 최정철 지부장, 김은영 서무주임, 이우용 부지부장 등이 진주시부를 이끈다.

2016년 3/4분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국회 청원 추진

연합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도록 제정 되었으나, 정부는 택시발전법률의 강력한 규제 조항 및 독소조항을 통하여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이에 행정 규제 및 독소 관련 조항 삭제, 불법여객운송행위 규정 강화 신설 등을 포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에 관한 청원을 추진하기로 연합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원서를 조합원 및 국회의원들에게서 서명날인 받아 제20대 국회에 청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 ☞ 택시운송사업은 자가용 증가와 렌터카의 폭발적인 증가, 택시유사업행위 증가 및 택시 공급과잉으로 장기적인 불황 상태임. 택시업계는 이를 해소하고 택시운송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대중교통육성법”)에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통해 택시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 정부는 택시업계의 간곡한 바람을 저버리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률)”을 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택시발전법률에 강력한 규제조항 및 독소조항 신설을 통하여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개인택시사업자는 물론 법인택시 종사자로부터 택시발전법률 폐지를 주장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 ☞ 택시발전법률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강화된 행정처분을 통하여 택시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나, 승차거부, 부당요금 수수 등 택시의 불친절 행위는 택시산업의 장기불황에 기인하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처분 강화는 정부에 대한 원망과 원성만 높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위한 제도장치가 우선 마련(택시 산업의 정상화)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택시부가가치세면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등 조세감면 규정도 관련 현행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택시발전법률의 제정으로 택시산업의 변화 또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 ☞ **택시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 조항을 인하여 택시발전법률의 자율감차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사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여 택시감차보상사업은 담보상태이며, 택시사업자의 출연금 납부의무화로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용자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택시 증차의 근본적인 책임은 선심성 행정을 추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책임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음.**
- ☞ **대리운전자가 위반한 사항인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등에 대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행위자 처벌 위주의 법률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처분을 지나치게 강화시키는 것은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 활성화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침.**
- ☞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고민을 찾아 볼 수 없고, 택시 대중교통 육성법 제의결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급조된 졸속법률에 불과하여 택시 종사자는 정부의 택시발전법률은 진정성과 실효성이 없으므로 결사반대를 추진하였으나 정부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어, 현행 법률의 규제강화와 독소조항으로 택시사업자는 심각한 사업경연난에 직면하고 있음. 택시업계의 의견과 현실 간의 괴리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법률의 모양세만을 갖추려 한 것이 자명함.
-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택시산업을 살려 달라는 택시종사자들에게 정부가 오히려 일방적인 희생, 굴복과 포기만을 강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택시업계를 옥죄는 법률로 인하여 택시산업은 사양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
- ☞ 택시운송사업의 유사한 불법 여객알선을 자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유사업이 “공유경제”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교묘히 악용하여 합법을 가장한 렌터카

여객알선을 제공하는 “택시”, 자가용 여객알선을 제공하는 “에어래빗”, “티클”, “플러스”, 동승자간의 합승을 제공하는 “더치택시”, “가티택시”, “비클택시” 등 등장으로 여객운송사업의 운송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음. 이는 **불법 여객운송 알선영업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음.**

- ☞ 이에 현행 택시발전법률을 대폭 개정하여 진정성과 실효성 있는 택시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청원입법을 발의하는 것임.

주요내용

- ☞ 환경 친화적 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하고 시·도 또는 연구기관으로 함.
- ☞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의 산정에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비율(시간실차율) 포함
- ☞ 택시감차위원회는 감차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전원출석, 전원찬성으로 의결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택시감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 ☞ 택시감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의무 완화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용자를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및 자동차 등 필요한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감차 보상 재원 추가
- ☞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기를 활용하여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삭제
-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차량 부가가치세를 2022년12월31일까지 면제 하도록
- ☞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삭제
- ☞ 자가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용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등의 자동차로 불법여객운송행위 금지 근거 마련
- ☞ 택시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 한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는 평일에 한하여 통행 허용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자가 운수종사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규정 삭제
- ☞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매년 실시하는 차량청결상태 등의 점검을 확인 받도록 함
- ☞ 자가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용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등의 자동차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할 경우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근거 신설
- ☞ 택시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 삭제

2 불특정 승객에 의한 운수종사자 폭행 강력 처벌 건의

연합회는 최근 “택시기사 폭행 10대, 2명 검거”, “직장 스트레스 20대, 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왜 깨웠어, 만취 공무원 택시 기사 폭행”, “택시기사 폭행하고 돈 훔친 30대”,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특히 지난 7월에는 70대 택시기사가 만취한 50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에 대한 처벌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 되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으로 관련 법령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법무부, 대검찰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2016. 09. 26)했다.

□ 현 황(관련 법령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연회비

- 유류 국내전용 면제
- 일반 국내전용 5,000원
(제휴연회비 5,000원, 기본연회비 없음)
- 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LPG 리터 측정 기준은 국토부, 국세청 기준
- 일 4회 한도
- 부제일 이용권,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거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 보조금 혜택 기준은 국토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 현대·기아차 구매 시 30만원까지 선포인트 받아 사용하고 매달 M포인트로 상환하는 차량 구매 프로그램(만기 종료 시 잔액은 익월 일시 청구)

종합건강검진 우대서비스

- 예약 시 40~60% 할인
- 전국 130개 이상 건강검진센터 예약 가능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모든 가맹점에서 0.5~2%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1인당 5년간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 M포인트+세이브-오토 포인트+통장포인트+가족 M포인트+5카드 오토 포인트 +BLUEmembers 포인트 통합 한도
- M포인트 사용은 구매 이전에 적립된 M포인트에 한하며, 해당 차량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불가
- BLUEmembers 포인트는 현대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
- KIA RED MEMBERS 포인트(구 Qmembers 포인트)는 기아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7.9%의 연체이자율 적용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60309-105329호(2016.03.23)

현대카드 홈페이지
www.hyundaicard.com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000

DIGITAL Hyundai Card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최근 택시기사 폭행 관련 언론 보도자료

보도매체	택시기사 폭행 주요내용
NEWSIS (2016.6.16)	• 택시기사 폭행하고 금품 빼앗으려한 10대 20명 검거 - 돌맹이로 기사 박모(69)씨를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연합뉴스 (2016.7.1)	• 직장 스트레스 20대, 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 만취상태에서 스트레스가 폭발해 택시기사를 폭행
NEW 1 (2016.5.23)	• “자는데 왜 깨워”... 60대 택시기사 폭행 30대 공무원 -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택시기사가 요금을 달라며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름
서울신문 (2016.6.23)	• 장애인 택시기사 폭행한 대학생 “택시비 많이 나와 불만” - 택시기사의 의족이 빠진 채로 10여 미터 가랑 끌려 감
연합뉴스 (2016.8.27)	• 여성 택시기사 강제 추행한 50대 승객 벌금형 - 한 식당 앞에서 B(60.여)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B 씨가 거듭된 거부에도 어깨와 손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A(51)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SBS (2016.9.2)	• “문 열어라, 이 XX야” 70대 택시기사 폭행하는 취객 ‘포착’

□ 문제점

○ 자동차 운전자 폭행사건이 증가 추세이며, 사회문제로 대두

- 불특정 승객에 의해 자동차 주행 중 벌어지는 운전자 폭행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경각심이 지극히 낮는데 대부분이 주로 만취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대폭 감경(심신미약)해 단순 벌금형에 처하는 등 “숨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일으켜 법적·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운수종사자의 인권이 오히려 법 테두리 내에서 극심하게 유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택시종사자 폭행 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감안하여 처벌 강화 필요

- 현재 국내에서는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반영하여 죄질에 상관없이 처벌을 감경해 주고 있으나, 운전자 폭행의 경우 제2차, 제3차 이상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 위의 또 다른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대단히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불특정 승객의 경각심을 고취 시켜야 함.

□ 건의내용

○ 자동차 주행 중(주·정차 포함)인 차량의 운전자 폭행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상태를 형감경사유에서 제외하여 주시고, 벌금형 보다는 실형위주로 처벌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건의 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 국토교통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택시운송사업 방식과는 다르게 예약을 통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단체 관광객 등 특수한 수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구간 요금제·전세 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자동차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택시운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2016. 08. 02) 하였으며, 그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운임·요금의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제7조(운임·요금의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 ----- -----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2. -----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
3.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제16조의2(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 ----- ----- ----- 1. -----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 2. -----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만을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도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배기량이 없거나 낮은 전기자동차 등을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외부에 차량의 종류 등을 표시하거나 내부에 요금미터기, 호출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택시운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2016. 09. 26) 하였으며, 그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 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5. (생략) 6. 고급형: 배기량 2,800시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 ----- ----- 1. ~ 5. (현행과 같음) 6. 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가. 배기량 2,800시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① ----- ----- -----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u>고급형 택시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u>) 3. (생략) ②·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서류 [<u>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u>]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u>고급형은 제외한다</u>)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자동차[<u>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u>]
가. ~ 마. (생략) 6. (생략) ②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 최근 일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함에 따라 무면허 교통사고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무면허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거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대여 시 임차하려는 자의 운전면허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를 대여하도록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자동차 임차인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를 근절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송석준의원 등 15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15인) (2016. 08. 30)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대여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고속철도역 및 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택시 사업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나, 주요 교통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택시와 인접 지역의 택시 간 이해관계가 달라져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행정기관의 조정역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고속철도역, 환승센터, 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이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신설되는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우현의원 등 11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이우현의원 대표발의 (11인) (2016. 09. 09)	○ 고속철도역, 환승센터, 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이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신설되는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관련)

■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서 공공 수송 분담률이 47%로 버스(53%)와 대등한 여객수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용차로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신상진의원 등 11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11인) (2016. 08. 2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에 1인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통행 허용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저공해자동차 지원 근거 마련)

■ 최근 국내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차량에 비해 인구밀집지역의 운행이 많고 주행거리가 현저하게 긴 택시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여 자동차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정부는 이미 택시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친환경 택시로 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도심지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받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대체 사업도 구입보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택시의 기술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려는 내용으로 이찬열의원 등 13인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13인) (2016. 07. 06)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대체 사업도 구입보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 현행법은 시내 여객운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연료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택시에 공급되는 모든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면제하고, 유류세 면제기한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10인) (2016. 07. 11)	○ 택시에 공급되는 모든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면제하고, 유류세 면제기한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

9 연합회 및 시·도조합 국회의원 간담회 등

■ 연합회 및 시·도조합은 우리업계의 현안문제인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 ▶ 친환경 차량 전기차 시범사업 지원 건의 ▶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전담지부장제 이행 요구에 대한 반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의견 등에 대하여 여·야 국회의원, 정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전달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추진 사항
2016. 07. 22	<p>○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최인호의원 간담회 -참석자 : 이사장, 부이사장, 지부장 등 8인 -건의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선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친환경 차량 전기차 시범사업 지원 건의 ☞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전담지부장제 이행 요구에 대한 반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의견 등 ☞ 부산택시업계 현안문제(택시요금 연내 인상, 고급택시 및 승합택시 본격 출범에 따른 활성화 대책 마련 건의, 택시 전담부서 신설)</p> <p>○ 전북개인택시조합과 안호영의원 간담회 -참석자 : 이사장, 전무, 전주·완주·진안·무주조합장 등 12인 -건의 주요내용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일몰기간 연장 ☞ 택시 승차대 개선 ☞ 운전자 보수교육 개선 ☞ 고속도로 및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 LPG 하이브리드 택시 차량 보조금 지원 ☞ 공제조합 현안문제</p> <p>○ 전남개인택시조합과 윤영일의원 간담회 -참석자 : 이사장 등 2인 -건의 주요내용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일몰기간 연장 ☞ 공제조합 현안문제</p>
2016. 07. 26	<p>○ 서울·전북개인택시조합과 정동영의원, 안호영의원 간담회 -참석자 : 서울조합이사장, 서울조합전무, 서울조합이사(2인), 서울조합지부장(1인), 전북조합이사장, 전북조합전무, 전북조합지부장(2인) 등 10인 - 서울개인택시조합 건의내용 ☞ 택시승차대 개선 건의 ☞ 택시감차 ☞ 고속도로 등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의 건 ☞ 법규위반자 다중처벌 개선 건의 - 전북개인택시조합 건의내용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일몰기간 연장 ☞ 택시 승차대 개선 ☞ 운전자 보수교육 개선 ☞ 고속도로 및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 LPG 하이브리드 택시 차량 보조금 지원 ☞ 공제조합 현안문제</p> <p>○ 경남개인택시조합, 박완수의원에게 건의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일몰기간 연장 ☞ 승합택시 도입관련 군지역 확대 시행 건의 ☞ 공제조합 현안문제</p>

일 정	추진 사항
2016. 07. 27	<p>○ 연합회, 부산·경남개인택시조합 국회의원 면담 - 최인호의원, 이현승의원, 조경태의원, 박완수의원 등 면담 - 참석자 : 부산·경남조합이사장, 연합회 실장 등 3인 - 건의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선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친환경 차량 전기차 시범사업 지원 건의 ☞ 공제조합 현안문제 건의</p>
2016. 07. 28	<p>○ 국토교통위원장, 연합회, 시·도조합 간담회 - 참석자 :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장, 연합회회장, 시·도조합이사장 등 20명 - 건의 주요내용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승합택시 도입관련 군지역 확대 시행 건의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 ☞ 친환경 차량 전기차 시범사업 지원 건의 ☞ 공제조합 현안문제 건의</p>
2016. 08. 08	<p>○ 연합회, 경기조합과 이우현의원 면담 - 참석자 : 새누리당 이우현의원, 개인택시연합회회장, 택시연합회장, 용인개인택시조합장 등 6명 - 건의 주요내용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승합택시 도입관련 군지역 확대 시행 건의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 ☞ 친환경 차량 전기차 시범사업 지원 건의 ☞ 공제조합 현안문제 건의</p>
2016. 08. 12	<p>○ 연합회장,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 - 참석자 : 개인택시연합회장, 택시연합회장 등 - 건의 주요내용 ☞ 공제조합 현안문제 ☞ 연합회 현안문제 등</p>
2016. 08. 22	<p>○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정책건의 - 참석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등 - 건의 주요내용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감차재원 마련 건의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택시 통행 허용</p>
2016. 10. 04	<p>○ 국토교통위원장과 개인택시업계 면담 - 참석자 : 연합회 및 서울개인택시조합 전무이사,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시흥시조합장 등 - 건의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관련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 등</p>

공제경쟁력을 말하다

의료연수특별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대인 보상 업무 담당 팀장급 참가 연수

개인택시공제조합을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보험연수원에서는 의료연수특별과정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후유장해등급판정'을 주제로 전국의 공제조합 직원 12명이 참가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

후유장해란 교통사고에 의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애가 남는 경우를 일컫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약관에 정해진 후유장해등급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등급을 판정할 수 있어야 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의료연수특별과정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공제조합 전국 지부에서 대인보상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급 직원들로서 공제업무 경력이 15년 이상 된 보상분야의 베테랑급 직원들이었다.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직원 교육을 수준별, 단계별로 구성하여 신규직원 및 입사초기 직원들의 교육 뿐 아니라 조합의 모든 직원들이 두루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상업무의 기초가 되는 의료지식과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 등은 새로운 기술과 이론이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정확한 보상업무를 위해서는 직원교육이 필수적이다.

보상경력이 5년, 10년 된 직원들도 새로운 이론들과 관련 법률들을 항상 체크하고 숙지해야만 보상업무의 전문가로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정형외과장해, 비노기과장해, 신경계장해, 정신과장해,

안과장해, 성형외과장해, 개호인정 및 향후치료비 산정의 7과목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사로 나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직원들이 조를 편성하고 각 조에서 수행할 주제를 정하여 결과를 도출한 후 발표 및 토론하는 교육생 참여 수업이 강의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강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존의 교육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를 둔 시도였다. 교육생들 또한 처음에는 발표와 토론에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교육에 참가한 한 직원은 "조별 과업 수행과 토론수업으로 강의시간이 훨씬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면서 "일방적인 교수님들의 강의보다 더 재미있고, 이해도 잘 되는 것 같다"며 교육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우리 공제조합 직원들은 3박 4일간의 모든 강의일정을 끝마치고 교육에 참가한 12명 전원이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을 진행한 보험연수원의 관계자와 강의를 맡은 교수들도 공제조합 직원들이 교육기간 내내 적극적인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가했다며 웃는 얼굴로 우리 교육생들을 배웅했다.

이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다.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도 직원들이 흘렸던 땀방울과 열정들의 결실을 맺는 풍족한 가을을 맞이하길 바라며, 취재를 마무리 했다.



▲ 공제조합 팀장급 12명이 참가해 3박 4일 일정으로 의료지식 연수를 받았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사고율 1% 줄이기

1. 전좌석 안전띠 매기
2. 운전·보행 중 스마트폰·DMB 사용 안하기
3. 생활도로 서행운전 좌·우 확인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 경영수지 개선 대책 회의 개최



▲ 8월 19일 본부 4층 회의실에서 본부 이사장이 주관, 실장 및 16개 지부 부지부장, 센터장이 참석, 경영수지 개선을 토의했다.

공제조합은 지난 8월 19일 본부 4층 회의실에서 본부 이사장 및 실장과 전국 16개 지부 부지부장·센터장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대책 논의와 강조사항을 전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2016년에도 공제 경영수지가 △66억 당기적자(7월말 현재)를 기록함에 따라 적자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부별로 월별 이행계획과 본부 각 실별 강조 및 전달사항을 시작으로 오후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

되었다.

유병우 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제 창립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서로간에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함을 각별히 당부했다.

본부 차원에서는 경영현황 소개와 적자요인 분석, 적자 개선 대책이 각 실별로 발표 되었으며, 경영수지와 손해율 사업비율의 상관관계를 고려 시 적정손해율은 80% 이내 유지, 보상금 관리 개선 방안으로는 사고율 감소활동, 수입차 관리 강화, 구상금 대응 철저 등의 방안들이 제시됐다.

공제 전체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체 지부의 부지부장들(일부 지부는 센터장이 추가 발표)이 예외 없이 직접 소속 지부의 월별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서로 논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공제 경영이 정상적으로 개선되어 조합원과 피해자 모두 상생하는 공제조합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경영개선 회의가 종료됐다.

(기사 제공·개인택시공제조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9월30일 본격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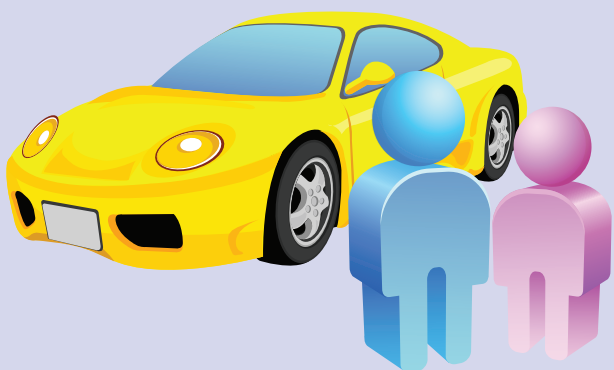
2016년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본격 시행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 신설로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총 4조5000억원, 1인당 9만원에 육박하는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지체, 삭감, 거절 시 보험회사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특별법은 보험금 지급 지체, 거절, 삭감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법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로 대납하고 있는 불리한 구조가 개선되고, 저렴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금 지급 지체, 거절, 삭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추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의 보호를 한층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에 이어 4일부터 일명 '보험사기다잡아'인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 흩어져 있던 보험 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가 한 곳인 모인 통합조회시스템)도 가동되어 보험사는 '보험사기다잡아'를 통해 가해자, 피해자 및 보험 관계자 간 상호 연관성을 네트워크 형태로 도식화해 보험사기 유의성도 확인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인택시 운전자 등 4명 사상자 발생

개인택시가 보행자를 충격 후 인도까지 돌진하여 보행자 및 개인택시 운전자, 개인택시 승객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발생한 이 사고는 이날 00시47분쯤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보행자를 개인택시가 충격하였고 보행자 충격 후 인도에 설치되어있는 신호기와 볼라드를 충돌한 후에야 정지했다.

이 사고로 개인택시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망, 개인택시 승객도 크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상태가 심하여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으며 다행히 현재는 일반병실에서 치료중이다.

현재 담당경찰서에서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 것을 감안하여 사고부근 블랙박스, 운행기록장치등을 입수하여 개인택시의 속도위반여부 및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일반차량보다 운행시간이 많은 개인택시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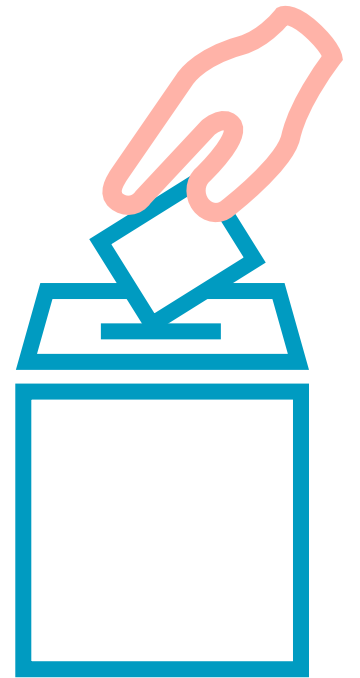


시·도조합 이사장 선거, 7개 조합 중 대구, 인천, 강원 조합 현직 이사장 출마

충남, 광주, 제주는 불출마 지역으로 난립

올 연말은 7개 시·도 이사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새 이사장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경 이사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인 충남 조합을 비롯,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제주 등이 줄줄이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중 대구, 인천, 강원 조합은 현직 이사장이 출마해 각축을 벌

이고 있고 광주, 충남, 제주 등 3개 시·도조합은 현직 이사장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으로 자천타천으로 난립되어 이사장 당선 을 노리고 표발갈이를 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현직 이사장이 출마한 대구, 인천, 강원지역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대구 조합>

자가충전소 발판으로 복지조합 완성할 터



제 11대 이사장 선거일을 20여일 남겨 두고 있는 대구조합은 이사장 선거운동으로 뜨겁다.

제 10대 이사장에 당선되어 4년 임기동안 화합조합, 복지조합의 가치를 내걸고 조합경영을 이끌어온 김순락

이사장은 현직 이사장이라는 프레임에 얽고 수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4년동안 조합의 화합을 다져온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21일 자가충전소를 개업해 임대충전소에 의존해온 복지조합에 활력을 불어넣은 치적을 내세워 뛰고 있다.

대구 북부 검단동에 1086평의 부지를 41억원에 매입해 세차장, 정비공장, 휴게실을 갖춘 충전소를 건설하면서 공사비 중 40여 억을 E1 가스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완공시킨 경영 수단을 홍보하며 표발갈이를 하고 있다.

특히 임기동안 반대파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서 임기동안 조합의 면모를 일신해온 업적이 조합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당락이 엇갈릴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이사장 직속으로 민원창구를 만들어 쾌적한 민원처리를 해오고 조합의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의 신뢰를 끌어 모으는 간간한 경영을 추진해 온 평가도 조합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역대 이사장 선거에서 연임을 허락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표심이 이번선거에는 어떻게 나타날 지도 선거 관점 포인트다.

연임이 쉽지 않은 징크스를 꼭 깨어 재선되어 화합조합을 만들겠다는 김 이사장의 열정은 1만여 조합원의 표심 속에 파고들고 있다.

<인천 조합>

짧은 재임 동안이지만 역동적인 업적 평가 원해



갑자기 사고사를 당한 11대 김민환 이사장의 잔여 임기를 놓고 벌인 선거에서 당선돼 2015년 6월에 인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승일 이사장은 11월 8일에 치뤄지는 12대 이사장 선거에서 재임기간이 짧아 현역 이

사장의 유리함을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2015년 6월 실시된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2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시조합 입성에 성공했으나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잔여임기의 한계를 극복하며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이사장 선거에서 좀처럼 재선을 허용하지 않는 인천조합의 독특한 표심은 잔여임기동안 조합현안 해결을 열심히 추진한 김 이사장의 길지 않은 재임기간 동안을 고려해 표를 던져줄 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또다시 선택할 지 선거가 예측할 수 없다.

많은 조합원들의 표심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제대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을 김 이사장 선거 진영에서 내놓고 막판까지 긴장하며 뛰고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 후 정관개정을 추진하다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인천 시청을 비롯, 구청을 돌며 조합 현안 해결에 올인해왔다.

또한 짧은 임기동안 택시요금 인상, 승강장 증설 추진 등을 해왔고 날로 발전하는 인천시 속에서 유일하게 낙후된 채 멈춰 선 조합의 사옥 등을 해결하는 야심찬 청사진을 밝히기도 하며 참신하고 역동적인 젊은 일꾼이라는 기대감을 심기도 했다.

<강원 조합>

추진력 강한 리더십 세워 재선 고지 향해 올인



강릉 지부장 시절 복지 지부를 만든 업적을 인정받아 제 10대 도이 사장에 당선돼 화려한 승진을 한 김주원 이사장이 연임을 향해 힘차게 뛰고 있는 강원조합 이사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뤄지고 있다.

오는 11월 15일로 제 11대 이사장 선거일이 확정된 강원조합은 김주원 이사장이 4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발판으로 선거운동을 강행하고 있다.

2013년 11월 1일 10대 취임 1년만에 희망택시를 춘천시에 비롯 5개 시·군에 띄웠다.

2014년 3월 13일 법인택시조합과 연합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과 함께 오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희망택시 업무 협약식을 갖고 5개군내 14마을을 선정, 희망택시 운영을 시작했다.

1차로 1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춘천, 횡성, 영월, 평창, 양구 등에 희망택시 운영을 시작하고 매년 증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희망택시 예산은 연 5억원으로 늘어났고 참여마을도 12개군 70마을로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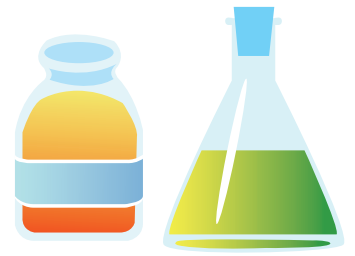
또한 조합원들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키우기 위해 도비지원금 3000만원을 확보해 도 조합 예산 3342만원을 합쳐 6342만원으로 18개 시·군지부별 지역 체육대회를 갖도록 하는 등 도청과 도조합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 김 이사장의 수완이 조합원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강릉지부를 복지지부로 성공시킨 경험담을 도 조합 경영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어 이번 선거결과가 주목된다.

건강상식

매년 반복되는 독감, 4가 백신으로 철저히 예방

한번에 네 가지 유형 예방 가능, 10월 말~11월 초가 백신 접종 적기



독감의 계절이다. 독감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하지만 접종률은 낮은 편이다. 흔한 질환이라 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까닭이다. 하지만 독감은 매년 2300여 명이 사망하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질환이다.

독감 백신은 매년 새로 맞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DNA 구조가 불안해 돌연변이가 자주 나타나는 탓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운데 인간에게 감염되는 유형은 A형과 B형이다.

A형은 H와 N으로 표현되는 단백질의 구성에 따라 재분류 가능한데 조합이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수많은 유형으로 나뉜다.

B형은 '아마가타'형과 '빅토리아'형 두 가

지로 나뉘는데 A형만큼 감염력이 높고 치명적이다. 지난해 국내 독감 환자의 40%가 B형에 감염됐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다.

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이재갑 교수는 "B형은 A형에 비해 소아·청소년 감염이 많고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형 가운데 세 가지만을 예방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2월 그해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 3종(A형에서 2종, B형에서 1종)을 예측하고 제약사는 예측한 바 대로 백신을 제작한다. 그해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형이 예측한 바와 유사하다면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지만 불행히도 예측이 빗나

가면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

한 번에 네 가지 유형을 예방하는 '4가 독감 백신'의 등장인 반가운 이유다.

4가 백신엔 A형 두 가지와 B형 두 가지가 들어간다. 사실상 B형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WHO와 미국질병통제센터(CDC),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런 이유로 4가 백신의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앞서 4가 백신을 도입한 나라에선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미국은 매년 독감 환자가 3만 명 줄고, 사망자 역시 7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호주는 아예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을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겨울부터는 4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특히 SK케미칼의 스카이셀플루(4가)는 항생제·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생산 4가 백신 가운데 유일하게 만 3세 이상 전 연령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시기도 중요하다. 너무 빠르거나 늦어도 감염 위험이 있다. 이재갑 교수는 "독감 백신 효과는 6개월가량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독감 유행이 완전히 끝나는 3~5월까지 예방하려면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했다.

기사출처·중앙일보(2016.10.10)

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택시 전용차 신차 출시 특집

- 르노삼성 -

SM7 택시, 르노삼성 택시부활 신호탄

✓ 현장 의견 반영한 고급편의장치와 가성비로 무장

✓ 라인업 보강으로 택시 시장 신삼국지 형성 기대

국내 택시 시장에서 르노삼성은 지난 2010년 SM5 중형택시로 시장점유율 10%를 넘기기도 했으나 이후 판매량이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2.1%까지 점유율이 떨어진 상태다.

2015년초 르노삼성은 택시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자체 개발한 도넛탱크를 적용하는 등 사용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SM5 노바 택시를 선보였으나 단일 차종만으로 단시일 내 현대 기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뒷심이 부족했다.

그런 만큼 르노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SM7 택시 출시가 중형에서 준대형으로 이어지는 택시 모델 라인업을 완성함으로써 현대 기아와 정면 대결이 가능한 실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M7 택시는 지난 2013년 영업본부 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부터 줄곧 택시부문 영업 강화를 주창해온 박동훈 사장의 철학과 의지가 낳은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사장은 택시 영업 현장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서 이를 제품 기획단계부터 적극 반영토록 했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지난해 SM5 택시에 처음 적용돼 큰 반향

을 일으킨 도넛@탱크 기술이다.

르노삼성자동차가 200여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도넛@탱크는 기존 트렁크의 절반을 차지하던 LPG 연료탱크를 동글납작한 행태로 바꾸어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탑재함으로써 그 동안 업계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였던 트렁크 공간 문제를 단번에 해소한 기술로, SM7 택시의 경우 경쟁 모델에 비해 1.6~1.7배 이상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르노삼성은 이번 SM7 택시를 시판하면서 영업용에 특화된 각종 고급 편의장치를 대폭 적용하면서도 경쟁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가격을 책정했는데, 이를 통해 영업용 택시시장에서 부활을 꿈꾸는 르노삼성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SM7 택시는 또 동급 유일의 편의사양인 매직 핸들을 비롯, 전자식 파킹브레이크와 전자식 룸미러, 운전석 파워시트, 엔진 버튼 시동장치, 레인센싱 와이퍼, 블루투스/핸즈프리 등 택시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할만한 운행 편의를 고려한 고급 장치들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함으로써 뛰어난 가성비로 벌써부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현장 의견 반영한 고급 편의장치와 가성비로 무장한 SM7.

르노삼성은 이번 SM7 택시 시판과 함께 SM5 택시까지 판매가 동시에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로 택시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택시기사들의 입소문이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업용 택시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가성비에서 결코 뒤질 것이 없다는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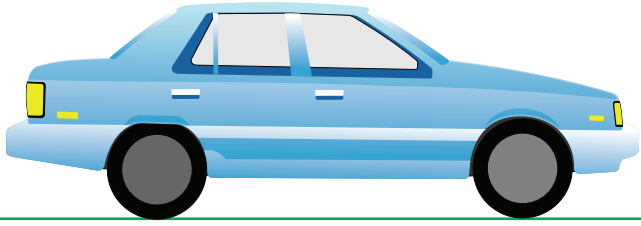
택시의 경우 광고전시 효과와 구전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 승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르노삼성의

로서는 SM7 택시 판매를 계기로 택시 부활이라는 명제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고 이를 통해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르노삼성은 택시 판매 확대를 위해 직판인력의 보강과 함께 택시 정비서비스 체제 강화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영업용 택시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SM7 택시가 현대 기아의 철옹성을 깨고 신삼국지 시대를 개막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지 업계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LPG 기획

수송연료 세제개편, LPG경쟁력 확보돼야 한다



LPG업계,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현실적 해법이 'LPG'
국가 에너지 믹스 위한 LPG 비중도 세금 구조로 왜곡
사용 제한 풀고 친환경 성능 감안한 세제 개편 이뤄져야



▲ LPG자동차의 가장 큰 단점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트렁크에 연료통을 탑재해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도넛 탱크를 개발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사진은 르노삼성자동차의 도넛 탱크가 탑재된 SM-7 자동차.

올해 초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수송연료에 대한 세제개편도 논의되고 있어 택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경유 세금을 인상시켜 휘발유와 LPG 등 경쟁 연료 보다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LPG, CNG 연료의 상대가격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LPG 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택시사업자들의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

이에 대해 LPG 업계는 친환경성이 뛰어난 만큼 경쟁 연료에 비해 낮은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적정 LPG 소비 비중 유지 필요해

에너지 자원 빈국으로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특정 에너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국가 에너지 균형 발전을 위해 LPG의 소비 비중을 4% 대로 유지토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연료 가격이 저렴한 경유차로 극심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친환경'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LPG소비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에너지 소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LPG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2차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휘발유 : 경유 : LPG 유종별 차량 판매 점유율을 42% : 42% : 16%로 예측했지만 2015년 기준 연간 판매 비중은 46% : 46% : 8%로 경유차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LPG협회는 유류세는 소비자가 개별 거래에서는 지불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가격에 반영한 것인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수송용 에너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를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수송용 연료가격 평균 상대비는 휘발유를 100으로 기준할 때 경유가 89, LPG가 48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유종별 상대가격비는 같은 조건으로 경유 가격 비중이 휘발유 대비 86, LPG는 53으로 OECD 수준과

비교할 때 경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고 LPG 가격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LPG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에너지의 사회적비용을 내재화하고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블랙카본 등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올해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경유차의 배출 유발요인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은 중국 등 국외 영향이 30~50%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 자료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비중을 줄이고 LPG 등 친환경 가스차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 친환경차 보급 추세에 역행하고 있고 특히 LPG차는 유독 국내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LPG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LPG차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LPG차 사용 제한 규제에 막혀 차량 보급은 뒷걸음질치고 있어 LPG차 운행대수는 2010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 5년간 20만대 가량 줄었다"며 "당장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LPG차 사용제한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세먼지 이슈 이외에도 LPG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개선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LPG차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차 대비 10% 적고 최근 강력한 지구온난화 원인물질로 부각되고 있는 블랙카본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점이라는 설명이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국민 건강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LPG차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사용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고수하고



▲ LPG산업협회 대구지회에서 플래카드를 내걸어 친환경 LPG차 장려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특히 LPG차는 미세먼지를 아주 적게 배출하며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해 유럽의 경우 전기·수소차는 물론 LPG·CNG 등 가스차량을 대체연료차로 지정하고 다양한 보급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LPG업계의 주장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해법을 LPG차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LPG차는 미래형 친환경차인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현실적인 친환경차 대안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조정 과정에서 친환경 성능이 감안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석유가스신문(2016.10.11)
안승국 기자 ask404@gnetimes.co.kr

Soft Charisma ALL NEW K7 TAXI

품격과 상품성을 갖춘 프리미엄 K7 택시



LPI 시동 대기 시간 단축 시스템 (LSTR)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 오토홀드 포함) 앞좌석 통풍 시트 스마트 트렁크 (클로즈 시스템)



최고의 선택!

무엇을 선택하든 기아자동차 택시는 남다른 가치와 품격으로 택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7 K5 TAXI

고객 선호 사양이 대폭 적용된 K5 택시



SX 전용 범퍼 + 핫스탬프그릴 6단 자동 변속기 (K-Advanced Shift) 스마트 내비게이션 (기아 T-trap) 운전석 히터드 시트



The Power to Surprise

www.kia.com |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